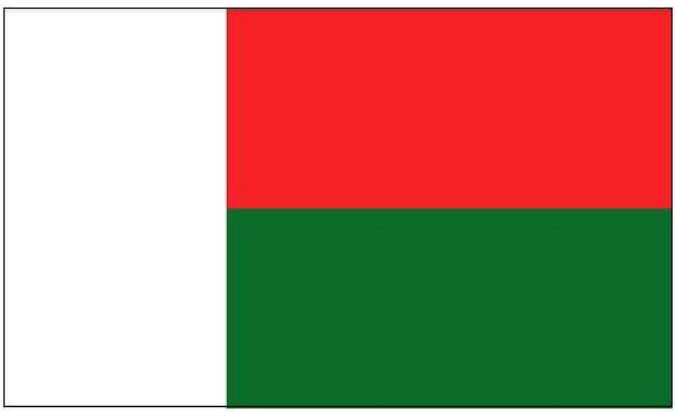
마다가스카르방문 참고자료

2023.12.6.(수)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마다가스카르 지도>



<마다가스카르 국기>

- 하양・빨강・초록의 3색기이며, 청렴과 신의・주권・농업과 생물다양성 상징 / 1959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 제정
- 하양과 빨강은 19세기에 지배하던 메리나(Merina) 왕국의 기에서 유래
- 초록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동부 해안 주민들을 고려하여 추가

1 방문지 일반 사항

ㅇ 시간대: GMT+3 (한국보다 6시간 늦음)/ 서머타임 부재

ㅇ 전압: 127V/220V, 50Hz

-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정별로 자가 발전기 설치 필요

ㅇ 국제전화: +261

ㅇ 인터넷: 가정에 ADSL이나 광랜을 설치 또는 3G/4G 모뎀박스나 노트북용 USB모뎀을 많이 사용

- 휴대폰 3G 데이터를 사용한 인터넷도 가능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림.

ㅇ 결제수단: 카드보다 현금 일반적으로 사용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카드 사용 가능시에도 수수료 5% 가량 추가되는 경우 발생 /신용카드는 대형 마트나 Mall에서는 사용 가능

ㅇ 화폐: 아리아리 (Ariary, MGA)

※ 1000원 = 약 3,488 MGA
US$ =약 4,548 MGA (2023년 12월 기준)

ㅇ 음식: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와는 다르게 쌀이 주식

- 우리나라와 같이 쌀밥은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물을 많이 넣어 죽처럼 먹기도 함. 또한 밥과 함께 반찬을 먹으며, 여타 아프리카와 달리 매운 음식을 좋아함.

ㅇ **언어: 프랑스어, 말라가시어**

ㅇ **민족구성: 말레이인도네시아계(Merina, Betsileo), 아프리카/말레이인도네시아/아랍계(Betsimisaraka, Tsimihety, Antaisaka, Sakaiava), 프랑스, 인도, 크레올 등으로 구성**

- 마다가스카르 민족은 공식적으로 18개지만 이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Karan, 중국 Sinoa, 유럽 Vazaha 등 이민족들도 정착해 다양한 민족을 구성

ㅇ **기후: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모두 공존**

ㅇ **종교: 토착신앙 52%, 기독교 41%, 이슬람교 7% 등**

ㅇ **물가: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

-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며, 현지 시장에서 물건 구입 시 흥정도 가능하나 외국인들은 현지인들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및 주거공간은 가격대가 매우 높은 편

ㅇ **외출: 외국인 대상 강도, 절도, 주택침입,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빈번하므로 외출 시 주의 필요**

- 시장 등 혼잡한 곳에서의 가방 도난, 식당에서 휴대폰 도난, 택시 운전사들의 바가지 요금 등의 사례 발생
- 또한 노상강도 및 납치 건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자동차 등 육로 여행시 주의 및 야간 외출 자제 필요

2 기후 및 강수량

❑ 마다가스카르 월평균 최고/최저 기온 및 강우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6.4	26.5	25.9	25.2	23.2	21.1	20.4	21	23.6	25.8	26.6	26.4
최저	16.6	16.8	16.3	15	12.3	10	9.5	9.6	10.6	12.9	14.8	16.2
강우량	325	287	236	101	89	19	10	9	20	53	144	279

❑ 전역이 열대기후에 속해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인도양 남서부의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폭우와 홍수가 잦은 편

※ 건기:4월-10월 (7-8월이 가장 건조)
우기: 11월-3월 (1-2월에 강수량이 가장 많음)

<마다가스카르 우기철의 사이클론>

❑ 우기 시즌 (11월-3월)에는 사이클론 내습할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갈 필요

※ 특히 동부 지방은 인도양의 태풍인 사이클론(Cyclone)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여행시 주의 요망

❑ 마다가스카르는 계절에 따른 기후 변화가 큼.

- 겨울인 6월-8월에는 아침・저녁으로 5℃까지 내려감.
- 여름인 1-2월에 기온이 가장 높음.

3 전염병 및 예방접종

❑ 건강 (예방접종 및 병원/약국)

- 마다가스카르는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 국가는 아님.
  ※ 단, 폴리오, A형 및 B형 간염, 파상풍,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광견병, 콜레라 등의 예방접종을 권장

- **안타나나리보에서는 말라리아의 위험이 적지만, 해안 지역을 갈 경우 말라리아를 대비해 모기퇴치제, 말라리아 약을 구비하는 것이 안전**
  ※ 황열병 전염 위험국에서 입국할 경우 황열병 접종카드(Yellow Card) 소지 필요

-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도 장티푸스, 황열 등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위치한 "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 de Madagascar)"에서 접종 가능
  ※ 마다가스카르 파스퇴르 연구소 백신접종 웹사이트: http://www.pasteur.mg/departement/centre-vaccinations/

4 문화적 특성

가. 고유의 문화와 다양한 민족 구성

ㅇ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내륙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구분됨.**

-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크며 다양한 문화와 민족 구성을 볼 수 있음.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메리나, 베칠레오, 베치미사라카 세 민족의 외모는 **동양적인 느낌**이 강함.

- 현지어인 말라가시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 어족**에 속함.
- 전통적인 대가족이 많고 결혼 전까지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함. 연로자를 존중하고 결혼을 정할 때 양가의 가족이 모여 상견례를 하며 사후에 조상들이 후손을 지켜준다고 믿어 무덤에 제사를 지내는 등 **한국과 유사한 풍습**도 보임.

나. 무라무라(Moramora): 느림과 여유의 미학

ㅇ **말리가시어 '무라무라'는 '천천히'라는 뜻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급하지 않고 느긋함.**

- 은행 및 관공서 근무시간: 8:00-16:00, 점심시간 12:00-14:00
  토요일은 오전만 영업하는 곳이 많음.

- 레스토랑은 점심(12:00-14:00)과 저녁시간(19:00-21:00) 외 영업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 것을 추천함.

- 약속을 잡을 때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좋으며, 물건을 주문할 때도 필요한 때보다 앞서 주문하는 것을 추천함.

다. 문화교류 시 유의사항

ㅇ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내륙 아프리카와 동일 집단으로 묶어 얘기하면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 직급체계가 분명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틀어질 위험이 있음.

라. 현지 문화

ㅇ 인사문화

-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르는 사이라도 눈이 마주치거나,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함. 프랑스어로 '봉쥬(Bonjour)', 말라가시어로 '마나우나(Manaona. 안타나나리보 및 수도권)', 혹은 '쌀라마(Salama, 전 지역)'라고 웃으며 인사함.

- 프랑스 영향으로 얼굴을 교차해 볼을 맞대며 양 볼에 번갈아가며 두 어 번 쪽 소리를 내는 비주(bisou)를 함.

- 프랑스어를 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며, 현지어인 말라가시어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욱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반응함.

※ 감사합니다: 미사우차 (Misaotra)
매우 감사합니다: 미사우차 베차카 (Misaotra betraka)
안녕히 계세요: 벨루마 (Veloma)

ㅇ 길고 어려운 이름

-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성과 이름은 매우 길고 어려운 편임. 일례로, 영국 가디언지는 직전 대통령인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Hery Martial Rakotoarimanana Rajaonarimampianina) 전 대통령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지도자 이름으로 소개함.

ㅇ 특별한 전통

- 마다가스카르에는 ‘파마디하나(Famadihana)’라는 특별한 장례풍습이 있음. ‘죽은 자의 귀환’이라는 뜻으로 6월에서 9월 사이 가족들이 무덤에 모여 고인에게 안부를 묻고 선물과 음식 등을 가져다 놓고 축제를 즐김.

5 주요 방문지

모론다바의바오밥 거리

ㅇ 서부 메나베 지역의 모론다바는 바오밥거리 및 주변의 바오밥 자생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작점이면서, 그랜드 칭기 여행의 시작점이기도 해 성수기인 6-9월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

ㅇ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가운데 하나인 바오밥나무는 높이가 20~30ｍ에 이르고 수명은 수천 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주변 물을 다 빨아들여 군락지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 희귀성이 큼.

ㅇ 바오밥나무는 모두 8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종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음.

ㅇ 모론다바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포인트인 **바오밥 거리**(Avenue de Baobabs)까지는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며, 건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함.

ㅇ 모론다바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소요되는 키린디 국립공원에서는 춤추듯 옆으로 걸어다니는 여우원숭이 시파카도 볼 수 있음.

베마라하칭기 국립공원

ㅇ 베마라하 칭기 국립공원(Tsingy de Bemaraha Strict Nature Reserve)은 카르스트 경관과 석회암 고지대가 깎여서 만들어진 독특한 봉우리와 날카로운 석회암 바위들, 마남볼로 (Manambolo) 강의 협곡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칭기는 마다가스카르어로 '발끝으로 걷다'라는 뜻. 석회암 바위 끝이 칼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곳도 많아서 **안전장치와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

ㅇ 베마라하 칭기 국립공원은 지난 **1990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

ㅇ 이 공원은 각종 멸종위기 동물인 여우원숭이와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

노시베

ㅇ 노시베 섬(Nosy Be)은 마다가스카르 북부에 위치한 섬이자 도시이며 안치나나나 주에 속함. 모잠비크 해협에 위치해 있으며, **마다가스카르내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음.

ㅇ 다이빙 및 자연 보호구역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됨.

ㅇ 노시베란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말로 '큰 섬'을 의미함. 열대 기후로, 12월-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여름만 약간 습한 기후

안타나나리보[수도]

안타나나리보 개요

- ❑ 줄여서 '타나나리브' 혹은 '타나'라고 통칭하며, 말라가시어로 천(千)의 도시라는 의미
- ❑ 인구 : 약 300만명 (마다가스카르 인구 : 약 28,427,333명 (World Bank, 2021))
- ❑ 면적 : 88km² (마다가스카르 면적 : 58만 km²)
- ❑ 주요 산업: 농업, 섬유·가죽 가공업, 광물업, 서비스업 등

ㅇ **(역사)** 수도인 안타나나리보는 17세기 초 메리나 왕국이 통일 과정에서 수도로 삼고 요새화된 왕궁(Rova)을 건립한 도시로, **1894년 프랑스 식민지**가 된 후에도 수도 기능을 유지하였음.

- **1960년 독립을 맞이하면서 마다가스카르공화국의 공식 수도로 선포되었으며** 현재는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이자 행정·경제·문화·교육 중심지 역할을 수행 중

ㅇ **(지리 및 기후)** 안타나나리보의 표고는 해발 1,276m로 우기 (12-3월)

을 제외하면 **10-28° C의 온난 건조한 날씨**를 보임.

ㅇ **(정치 및 경제)** 전체 마다가스카르 GDP의 42%를 창출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최근 들어 도시화와 함께 급속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 환경오염, 치안, 전력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 도심내 빈민촌과 개발지역이 혼재하고, 빈부 및 지역 격차가 심화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

6 안타나나리보 주요 방문지

리머 파크

○ 수도 안타나나리보 중심부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여우원숭이를 포함하여 총 **일곱 종류의 리머**가 서식하고 있음.

- 입장료: 70,000 아리아리 (성인) / 25,000 아리아리 (5-12 아동)
- 가이드 투어: 200,000 아리아리 (약 40유로)

대통령궁[Ambohitsorohitra Palace]

○ 수도 안타나나리보 중심부에 위치하며, 프랑스 통치 시절 총독관저로, 독립 이후 '암보히초로히트라 궁전'으로 이름이 바뀌며 대통령궁이 되었음.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며, 여왕궁을 본따 지

은 건물

※ 대통령은 안타나나리보 Iavoloha Palace에서 거주

여왕궁 [Rova de Manjakamiadana]

ㅇ 로바궁은 프랑스 식민통치 이전 메리나 왕국의 군주들이 거주했던 궁전으로, 메리나 왕국의 군주들 중 여왕이 많았다는 이유로 여왕궁으로 불림.

- 1995년 11월 6일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었으나, 재건 작업을 통해 예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되찾음.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타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서쪽 방향으로는 마하마시나 시립경기장, 군인기념비, 아노지(Anosy) 호수 등이 보임.

7 특산품

가. 바닐라

○ 스페인어로 ‘넝쿨 난 종류의 꼬투리, 콩’이라는 뜻의 이 바닐라는 몇 년을 정성을 들여 재배해야만 수확이 되는 식물로 샤프란(Saffron)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spice)

○ 마다가스카르는 바닐라 주요 수출국으로, **세계 바닐라의 약 80%를 생산**

<마다가스카르 특산품>

나. 사파이어

○ 마다가스카르는 여러 가지 보석의 산출지로 유명하지만, 특히 사파이어의 주요 산출지 중의 한 곳임. 1998년 마다가스카르 남서쪽 내륙에 위치한 일라카카(Ilakaka)란 지역에서 사파이어가 발견되며, **세계 사파이어의 약 50%를 공급**

8 대사관 정보

❑ 외교관계 수교: 1962년 6월 25일

※ 1972년 7월 관계 단절 후, 1993년 5월 19일 관계 정상화, 2016년 7월 5일 공관개설

❑ 대사관 연락처 및 주소

○ 주소: Villa Pervenche, Lotissement Bonnet, Ivandry, Antananarivo, Madagascar

○ 연락처: (전화) +261-20-222-2933
(긴급연락) +261-32-781-0874
(E-Mail) ambcoreemg@mofa.go.kr

○ 근무시간: (월~목)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금) 08:00 ~ 12:00

/끝/